

차 한잔에 가을향기 담으세요

원연한 가을에 접어들면서 차 관련 문화행사가 잇달아 열리고 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는 계절, 차 향기가 묻어나는 전시장을 찾아가 보자.

단풍이 물들어가는 함천 해인사의 구광루 갤러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다도구 전시회'가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열린다. 서울 인사동 소슬다원이 준비한 이 전시회에는 오영순 대표가 수집해 온 한국과 중국의 차 도구 200여 점이 선보인다. 또한 소슬다원이 직접 만든 차와 대만 구산우롱과 보이차, 중국 구산차 등을 시음해보는 코너도 마련되어 있다. 오 대표의 "다양한 차 도구들뿐 아니라 '차나무로 만든 관세음보살상' 등 아름다운 소품들도 함께 즐길 수 있다"고 말한다. (02)739-3035

한편 구광루 갤러리에서는 달원 김창배 화백의 '차 한잔의 인연' 전도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함께 열린다. 인사동 달원 김창배를 운영하는 김창배 화백이 지난 6월 펴낸 <차 한잔의 인연>에 담긴 그림 36점을 선보인다. 차 한 잔을 마주하고 앉은 차인들의 모습을 담백한 선묵화로 만나볼 수 있다. (05)934-3102

전통 차사발의 무박함과 순박함을 느껴보고 싶다면 문경시가 개최하는 '제5회 문경 전통차 사발축제'를 찾아가 보자.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문경새재도립공원 내 문경도자기전시관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서는 문경 전통 차사발 및 대를 이어 온 사기장(沙器匠)들의 차사발 명품전, 전통 다례시연, 선조 도공 추모제를 볼 수 있다. 또

한 문경 도자기 체험장에서는 관람객들이 직접 물레를 돌려 도자기를 빚어보는 '내가 만드는 도자기 체험교실'과 전통 망댕이 가마 불 지피기, 전통다례 시연, 장승 깎기 시연 및 체험, 차나무 전시 및 수제차 시연, 가족다례경연대회, 풍물한마당 등 다채로운 참여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문경은 조선 초기의 분청사기 도요지로 유명한 곳으로, 지금까지 고려청자 가마터 4개, 분청사기 가마터 1개, 백자 가마터 76개 등 총 80여 개의 가마터가 확인되었다. 문경 도자기는 우리 민족의 순박한 심성이 그대로 배어있어 색채와 형태가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것이 특징이다. (05)4550-6061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인국동 백상기념관에서는 월간 '다도' 초대 '한국 다기 명인 5인전'이 열린다. 주홍우 대표이자 고려다관 연구가인 월과 이정환 씨와 대한민국 도예 명장인 도천 천한봉(문경대 도자기학과예과 명예교수) 씨, 중요무형문화재 제110호 사기장자사 도예부분 초대 명장인 백상 김정옥 씨를 비롯해 원당 김성길, 우송 김대희 씨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다. (02)722-7777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는 서울 성신여자대학교에서 '국제 차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한국 차학회와 주최하고 성신여대 문화산업대학원이 주관하는 이 행사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다례법 발표회와 들차회, 차도구 전시회, 차사전 전시회가 함께 펼쳐진다. (02)3280-2894

여수령 기자 snoop@buddhapia.com



“
‘차와 잘 어울리는 가을’ 축제 풍성
다구전시부터 학술회의까지 다양
”



우리지

김계 청운사 '하소백련'

'하소백련'은 백련지로 유명한 김계 청운사 주지 도원 스님이 백련의 맑고 그윽한 향기를 작설자와 집설사킨 차다. 명나라 전춘년이 쓴 <제다신보>와 도응이 쓴 <고반어사> 등에 근거해 만들어진 '하소백련'은 백련이 폼을 때 삼베 주머니에 찬 작설자를 넣어 백련의 향을 담은 것으로, 차의 찬 성질이 백련과 함께 따뜻하게 변하는 것이 특징이다. 제작 100g, 6만원. (02)732-1520

김태곤씨 '한국차 선비다례' 발간

(사)한국차인연합회 1기 다도정사(正師)이자 (사)태정에다문화협회 이사장인 김태곤 씨가 차의 정신과 선비다례를 자세히 소개하는 <한국차 선비다례>를 펴냈다.

김 씨는 책에서 현대인들에게 있어 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선시대 선비들의 다법인 선풍류의식다례와 선풍류다, 옥골류의식다례 등의 순서를 사진을 곁들여 소개하고 있다. 또한 유치원생부터 초·중·고등학생의 다례법도 함께 소개한다. 값 1만원.

예지원 다도반 가을학기 개강

(사)예지원이 가을학기 다도반과 규수반을 개강한다. 차의 역사와 정신, 행다법 등을 배우게 되는 다도 초급과정은 12월 18일까지 매주 목요일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생활예절과 차생활예절 교육이 마련되어 있는 제140기 규수반은 11월 3일부터 매주 월·수·금요일 오후 2시부터 강의가 시작된다. (02)2253-2211

차맥 지킴이

설옥자

(가예원 원장)

월요일은 천안 각원사에서 강의, 화요일은 조계사와 서울 사무실에서 강의, 목요일은 안성 대안사... 이는 유명 강사나 젊은 기업인의 일정이 아니다. 이 스케줄의 주인공은 올해 일흔을 맞은 가예원 설옥자 원장. 지난 9월 16일, 30여 년 간 차인 양성을 위해 힘써온 설 원장을 조계사 맞은편에 자리 잡은 가예원 중앙회 사무실에서 만났다.

▲처음 차를 접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본격적으로 차 활동을 시작한 것은 제가 39살 때입니다. 1975년 창덕궁 낙선재에서 열린 현대에서 예지원 강연 속 원장을 만나 함께 차문화 대중화에 앞장서고 다짐했습니다. 당시는 차를 마시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는데, 예지원에 다도회를 개설하고 회장직을 맡아 5년간 이끌었고, 이후 가예원과 조계사 문화강좌에서 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예원 창립과 활동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1981년 후학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에 가예원을 창립했습니다. 처음엔 조계사 앞에 차인들과 불자들이 편히 쉬며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사랑방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이곳(조계사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후 20여년 넘게 문화생활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가예원을 사단법인

20여년 일본, 대만등서 발표회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자세 필요 '차 자료관' 설립 마지막 바람

으로 등록하고 가예원 회원과 차에 입문할 사람들을 위해 조직을 체계화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일본과 중국 등을 100여회 넘게 다니며 우리 차문화를 알리는데 앞장 서 오셨는데요.
"외국의 차문화가 우리와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알아보고, 또 우리 차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여년 동안 일본과 중국, 대만 등에서 차를 배웠고 발표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또한 1984년에는 일본 다도의 한 유파인 엔슈류(鹽州流)에서 교수증을 받았는데, 그 덕분에 당시 영부인이었던 김옥숙 여사에게 일본 다도를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후학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 있으시다면?
"차를 마시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향기로운 차를 마시며 정신을 순화하고, 더 나아가 자신을 낮출 줄 아는 모습이 진정한 차인의 모습이지요. 저는 차를 처음 배울 때부터 이런 마음을 항상 간직하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차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을 사랑한다면 그야말로 '맑고 향기로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의 계획은?
"이제 저는 일선에서 물러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 개발한 다법들을 책으로 묶어 펴내고, 20여년 동안 수집해 온 수백여 점의 다구들을 적절한 기관이나 단체에 기증해 '차 자료관'을 만들고 싶은 것이 마지막 바람입니다."
여수령 기자

mahamall.co.kr

생명의 돌, 희담석은 이렇게 다릅니다

"생명의 돌, 생체활성 메카니즘 -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동남아 오지에서 옛날부터 치료용으로 쓰이던 신비의 돌입니다. 지구 깊숙히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융합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의 일종으로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여타의 제품보다 뛰어납니다. 이런 희담석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리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한 것이 (주)자원넷의 희담석 제품입니다.

<희담석 체험사례>
"얼마, 제가 어느 대학에 갔지 기대하세요"
희담 방석과 인연을 맺은 지 벌써 2년이 되어간다. 1년 전 하고 1학년이었던 딸은 평소 책상에 앉아서 12시 남기기를 참지 못해서 잠이 잘 안 들었다. 또한 아침에는 늘 개우기 전쟁을 치러야만 했다. 저학년 후석에 두학년 <희담 방석>을 알게 되어 딸 다리의 외자에 찾아 놓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졸지도 않고 집중을 잘 하는 듯 보였다. 허우는 중간고사를 준비하면서 딸 아이의 새벽 3시 ~4시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졸지도 않고 아침에 힘들어 하지 않고 잘 일어나는 것이었다. 평소 자기 반 32점중 27점 정도였던 딸아이의 성적은 <희담 방석>을 사용한 직후 10등으로 쏙 올랐다. 과목중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일 힘들어 했었는데 영어 과목의 성적이 전체적으로 월등해 나아갔다. 나와 딸에게는 물론 선생님과 친구들까지도 매우 놀라웠다. 그후 딸아이는 아침에 잠을 잘 때도 희담 방석을 베개로 사용할 정도가 되었으며, 공부에 대한 열정도 점점 높아졌다. 그리고 나서 저를 1학기말 고사 성적은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전체 과목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에 95점이 나왔던 것이다. '얼마, 새로 태어난 것 같아요. 공부하는데 이렇게 재미있을 줄 정말 몰랐어요. 제가 어느 대학에 갔지 기대하세요' 하며 흥분해 하는 딸 아이를 보니 그저 감시할 뿐이다.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희담 방석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이 글을 씀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영희(42세/여, 수험생 어머니, 부천중동)

"얼마, 정말 공부가 재미예요."
일 년 전 손바닥 크기의 희담석 지킴이를 선물받았다. 허리가 아플 때 하면 대보았더니 한두 시간 지나자 요통이 사라지는

희담석
稀潭石

미하몰이 수험생에게 추천하는 상품

(희담석 방석)
● 1인용 보석: 4,000,000원
● 2인용 보석: 2,800,000원
● 3인용 보석: 3,000,000원

(희담석 베개)
● 1인용 보석: 4,000,000원
● 2인용 보석: 2,800,000원
● 3인용 보석: 3,000,000원

게 보듯 돌이 아기가 보다 싶었다. 그후 희담석으로 만든 방석이 나왔다고 하기에 한 개 구입하여 고등학생 아들의 오자에서 끌어주었다. 어느 날 아들이 문득 '엄마, 정말 공부가 재미예요.' 하는게 아닌가! 이유는 물론 희담방석 위에 앉아 있을 때는 마음이 편안하고 머리가 선명해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잠을 잘 잔다고 하였다. 그후로도 성적은 올라 갔으며 지금도 꾸준히 성적이 오르고 있는 중이다. 모두 희담방석 덕분이라 생각된다. 수험생이 있는 집에서는 꼭 한번 써 보실 것을 자신있게 권한다. 강해숙(43세/여, 수험생 어머니, 일산)

"건강이 회복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나는 백혈병과 무병종이며, 이틀에 한번씩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마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주사 맞고 난 다음날 백혈병 환자들은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친구의 소개로 무연히 희담석 보석을 구입한 후, 주사를 맞고 희담 보석 위에서 하룻밤을 잤더니 이상하게도 통증이 없었습니다. 의아했지만 다음날 다시 주사를 맞았고, 그리고 희담석 보석에서 또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보낸 중 희담석 보석을 한번 시험해 보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한 후 4개월 동안 백혈병에 대한 어떤 약도 먹지 않았으며 병원 치료도 중단한 채 오로지 희담석 보석에서만 잠을 잤습니다. (백혈병 환자는 약을 끊을 경우 대부분 1달 정도 되면 병원에 실려 간다고 합니다.) 4개월이 지난 시점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였고 결과를 본 나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혈구의 수치? 병원에 다니며 약을 먹었던 당시의 수치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희담석 보석에서 자면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건강이 회복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김기주(51세/남, 대전시 서구 둔산동)

"물 안 가득히 에너지가 생성되고 있는 것을 느끼며 가뭄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
"늘 냉역한 나는 불사를 믿고 건강을 회복하고자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실망하고 했다. 특히 평소엔 잠을 꼭 잘 수가 있었기에 아침에 일어나려면 목신! 천근만근엔 듯했다. 우연히 도관스님의 소개로 희담석 보석을 사용하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잠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잠이 보약'이라고 했듯이, 아침에 일어나면 숙면을 취한 기분인지 몸 안 가득히 에너지가 생성되고 있는 것을 느끼며 가뭄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 희담석 보석을 사용함 후 약 6개월이 되었다. 불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지금 허리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보내고 있지만, 희담석 보석이 있기에 그 큰 불사를 대려없이 지내고 있으니 참으로 감사하다. (스님, 경남)

마하몰 제품문의
(02)732-1520

제조원
(주)자원넷
JAWONET CO., LTD.